

좋은 시설과 서비스, 환자중심 케어의
진정한 의미를 선사하는 병원

미소래 병원

www.misora.com

3F 미소래스킨케어 리원

미소래병원 이상형 원장

앞집 아저씨 같은 부드러운 이미지가 눈에 먼저 들어온다. 이것저것 물어보는 애민한 환자가 그의 설명에 이내 미소를 지으며 상담
심을 나눈다. 뒤편에 뻗어 있는 천정 그리고 환자 중심의 케어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이상형 병원장은 경기도 파주시 출생율의 반
이상을 전담하는 지역 명이다. 외국인환자도 많고 취약계층이 많아 손해 아닌 손해를 보지만 '의사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외부의 칭찬에 손사래를 친다. 그의 친절로 세운 병원은 그렇게 개원 10년 만에 그를 지역 명사로 만들었다. <문윤희 기자>

세심한 배려는 경청에서 나온다

서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약 1시간 30분 만에 도착한 미소래병원은 외관의 깔끔함과 넉넉한 주차공간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병원이다. 경기 외곽에 위치해 있어 대부분의 환자들이 대중교통보다 승용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시설의 불편함을 최대한 줄이려했던 이상형 병원장의 배려가 만들어낸 공간이다. 병원 입구로 들어서면 진찰실 맞은편 통유리 너머에 언덕 같은 조그마한 정원이 눈에 들어온다. 병원이라기보다는 정원 같은 풍경이 환자들에게 편안함을 선사한다.

시선을 접수처와 진찰실로 옮기면 그 사이사이에 따듯한 핑크와 노랑의 조화로운 벽면이 위치해 있다. 발길이 머무는 바닥에는 환자가 진찰을 받기 위해 이동해야 하는 동선이 초록색 라인으로 줄을 따라 이어져 있다. 접수-진찰-처방으로 이어지는 진료시스템으로 혹시나 환자가 이동에 불편함을 느낄까 싶어 만들어 놓은 배려선이다.

인터뷰를 위해 들어선 병원장실은 바깥 풍경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 정보를 정확히 환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이유 때문인지 이상형 병원장의 테이블 맞은편에 두 명이 앉을 정도의 의자가 가지런히 배치돼 있다. 2평이 조금 못되는 공간에 환자와 의사, 그리고 가족이 출산을 위한 논의를 하는 회의 장소라고 하는 편이 더 나을 듯하다. 이상형 병원장 자리에는 환자 편에서 보일 수 있도록 배치된 최신형 모니터와 각종 출산 정보를 담은 아이패드가 가지런히 세워져 있다.

“요즘은 환자들도 병원 오기 전에 인터넷 검색으로 관련 정보를 다 찾아서와요. 그들이 원하는, 병원에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장의 고집 때문인지 최신의 설비는 당연하고 환자에 대한 공간 배려는 기본인 미소래병원은 임신, 출산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환자에게 세밀히 안내하기로 유명한 병원이 됐다.

이 병원장은 “환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환자가 안심할 수 있고, 무엇보다 편안하게 생각하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주리는 이름의 도시에서

이상형 병원장은 미소래병원을 10여 년간 운영하면서 이 도시에 걸맞은 병원으로의 위치를 다지고자 항상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지역특성상 외국인 환자와 저소득계층 환자 비율이 높고 지역민의 방문율이 많아 ‘토착병원’이라는 이미지에 ‘봉사하는 병원’이라는 이미지를 더하고 싶기 때문이다.

파주시에서 산과가 운영되는 곳은 단 두 곳뿐인 상태에서 최첨단 시설과 친절로 무장한 미소래병원을 찾는 이들이 점차 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는 “10년 전에 비해 출산율이 많이 떨어졌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여전히 출산율이 높은 지역이 파주”라면서 “지역민이 우리 병원에 와서 출산하려면 익숙한 환경이 중요. 한데 최첨단 시설은 이제 기본이다. 어떻게 하면 그 기본에 환자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한다”고 전했다.

현재 미소래병원은 30병상 규모에 중형급 병원이지만 월 100회 출산을 거뜬히 소화하고 있다.

▲산생아실



▲산모요강환장



병원 운영 수익을 맞추기엔 적은 출산율이지만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이 병원장은 골몰하고 있다.

이런 그에게 가끔 주변에서 “부인과를 운영하라”는 조언이 나오지만 그는 단호히 그런 제안을 거절한다고 했다. “부인과는 말 그대로 돈은 되지요, 그런데 그러려면 아예 산과를 차리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부 정책에 좌우되고 출산율이 떨어져 어렵다고 해도 산과 의사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그리 쉽게 배제할 수 있나요.” 그는 정부 정책에 대해 할 말이 많은 듯 했지만 병원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자며 다시 말머리를 돌렸다.

파주라는 도시 특성에 맞게 외국인환자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인근에 가구공장, 출판공장이 많아 외국인 환자들이 많이 찾는다는 그는 환자와의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최대한 정확하고 자세하게 환자의 상황을 설명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 와서 제대로 된 의료 환경을 접할 수 없는 그들에게 출산은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안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타지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이들에게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주면서 한국이, 또 파주가 사람이 살 만한 곳임을 알려주는 지역지킴이 역할도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셈이다. 저소득계층의 비율이 높아 출산에 부담을 갖는 환자들이 많이 찾는 곳 또한 파주다.

“어떤 환자부부에게서 제가 아이를 4명이나 받았어요. 가정형편이 딱한 부부였는데 어느 날 다섯 번째 아이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그들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선택은 맡겼지요. 며칠을 기다렸더니 낳겠다고 부부가 찾아왔어요. 정말 그분들께는 경의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는 5번째 아이를 직접 받았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고 진료비도 몰래 사비로 충당했다.

병원장이 되고 싶어서 선택했던 길

그는 산부인과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대학재학시절 거리를 걷다보니 건물이 있는 곳은 산부인과와 정형외과뿐이어서”라는 다소 생뚱맞은 답변을 내놓았다.

그렇게 병원장이 되고 싶었던 대학생은 산부인과 전문의의 길을 걷게 됐다. 졸업 후 연구도 없는 파주에 터를 내리면서 그는 병원 설립당시 유행하던 ‘배미안 아파트’처럼



한자로 멋지게 병원이름도 ‘미소래(美笑來)’라고 지었다. “병원이름은 당시 유행하던 한자표기를 쓴 건데 지금도 잘 지었다고 생각해요. 환자들이 이름을 쉽게 기억해서 좋고, 그 뜻도 좋으니 일석이조 아닌가요?”

소탈하고 친절한 이상형 병원장의 ‘미소래산부인과병원’은 개원 10년을 맞으며 ‘미소래병원’으로 다시 이름을 바꿨다. 이미 산부인과로 정평이 나 있는 상태에서 산부인과라는 타이틀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서다.

10년간 파주에 터를 닦으며 발전하다보니 건물 6층에 10병상 규모의 산후조리원도 들어서게 됐다. 규모는 작지만 “집처럼 편안하게 산후조리 제대로 하고 가시라”고 환자들을 위해 지은 곳이다. 산모만을 위한 전용 뷰티센터도 들어왔다. 임신으로 살이 찐 산모를 위한 비만클리닉관리, 피부가 푸석해진 산모를 위한 피부관리, 산후 피로를 씻기 위한 아로마 전신마사지까지 체계적인 관리 서비스가 이뤄진다.

이상형 병원장이 사랑하는 병원 시스템 중 으뜸은 자신이 직접 손으로 또는 발로 뛰는 ‘환자 소통 서비스’다. 환자가 병원 홈페이지(www.misorea.com)게시판에 묻거나 이상형 병원장의 카톡 또는 문자로 질의를 할 경우 실시간으로 답변을 하는 서비스다.

그는 진료시간 외에는 항상 환자의 대화를 위해 ‘대기 중’이라며 웃는다. 진료 후 환자의 몸에 이상 상황이 발생했거나 진료시 미처 묻지 못했던 질문들은 이상형 병원장의 스마트폰에서 마무리 된다.

‘여성의 아름다움, 건강의 근원인 웃음’이 함께하는 미소래 병원은 이상형 병원장 특유의 쾌활함과 활기, 그리고 친절에서 시작해 그 끝을 맺는다.

그가 있는 한 파주에서 영원히 존재할 미소래병원은 이제 ‘또 다른 10년’을 맞이하며 환자를 맞고 있다. / MP저널